



인도 보험시장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

이소양 연구원

- 인도 보험시장은 총수입보험료가 2000년 시장개방 이후 2010년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폭 상승하였음.
 - 인도 정부는 2000년 국내 보험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국유 보험회사의 서비스 저하 문제 개선을 위한 민영화·개방화를 골자로 보험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음.
 - 인도 정부는 민간자본이 독자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가하였으며 외국자본이 합작 보험회사(외국자본 출자 상한이 26%로 제한)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였음.
 - 동 완화조치로 인도 보험시장에서 활동하는 민영 생명보험회사 개수는 2002년 4개에서 2013년 23개, 민영 손해보험회사의 개수는 2004년 9개에서 2013년 21개로 증가하였음.
 - 인도 보험시장 총수입보험료는 2000년 99억 달러에서 매년 23.0%씩 증가하여 2010년 78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0.4%에서 1.4%p 늘어난 1.8%로 상승하였음.
 - 인도 생명보험 부문의 총수입보험료는 2010년 678억 달러로 2000년 76억 달러 대비 약 8배가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 부문의 경우 2010년 106억 달러로 2000년 23억 달러에 비해 약 3.5배가 늘어났음.

- 그러나 2011년부터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인도 생명보험 부문의 총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전체 보험시장 총수입보험료는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 보험감독청(IRDA)은 2010년 변액보험 투명성 제고 및 불완전판매 문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개정 및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 IRDA는 유닛링크드보험(Unit-linked Insurance Plan) 및 유니버설라이프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에 대한 규제개정, 보험판매 적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음.¹⁾

1) 동 규제강화조치는 주로 수수료 상한액 설정, 보험기간 연장, 판매수수료 지불방법 개정, 보험 해약 불가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있음.

- 인도 생명보험 부문의 총수입보험료는 상기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2011년 604억 달러, 2012년 533억 달러, 2013년 522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10.9%, 11.8%, 2.1% 감소하였음.
- 이의 영향으로 인도 전체 보험시장의 경우에도 2011년 726억 달러, 2012년 664억 달러, 2013년 656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7.4%, 8.5%, 1.2% 하락하였음.

〈표 1〉 인도 보험산업 총수입보험료 성장 추이

(단위: 억 달러, %, 위)

구분	총수입보험료	성장률	세계시장 비중	세계시장 순위
2000	99	-	0.4	23
2001	119	20.2	0.5	19
2002	155	30.3	0.6	19
2003	173	11.6	0.6	19
2004	212	22.5	0.7	19
2005	250	17.9	0.7	19
2006	430	72.0	1.2	15
2007	544	26.5	1.3	15
2008	562	3.3	1.3	14
2009	651	15.8	1.6	12
2010	784	20.4	1.8	11
2011	726	-7.4	1.6	15
2012	664	-8.5	1.4	15
2013	656	-1.2	1.4	15

자료: Swiss Re(2002~2014).

■ 최근 인도 정부는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외국인 투자방식 다양화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상공회의소(FICCI)는 향후 인도 보험시장의 외국자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FICCI는 향후 인도 보험시장의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인도 보험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인도 정부는 2014년 7월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외국인 투자방식 다양화 등을 포함한 규제 완화조치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국회에서 보험법에 대한 수정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완화조치안은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기존의 26%에서 49%로 상향 조정하며 외국인의 투자방식을 기존의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방식에서 주식시장을 통한 보험회사의 주식 매입 방식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 동 보험법 수정안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정당이 의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FICCI는 동 완화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향후 10년 인도 보험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신규 투자가 약 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인도 보험시장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아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음.
 - 2013년 인도의 보험밀도는 세계 평균인 652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52달러이며 보험침투도도 세계 평균인 6.3%에 못 미치는 3.9% 수준인데, 이는 인도 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의미함.
 - 현재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의 국내보험회사들은 인도 보험시장에서 주재사무소만을 개설 하였지만 향후 인도 보험시장의 규제변화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Swiss Re, IRDA, FICCI 등)